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ONE MEMORY OF FLORA BANKS

가제 : 플로라의 기억 하나

저자 : Emily Barr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K Children

발행일: 2017년 초

분량 : -

장르 : YA 소설



새로운 기억은 곧 지워져 버리는 열일곱 살 소녀, 어느 날부터 사라지지 않는 행복한 기억 하나
열 살 때 뇌 손상을 입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플로라. 이제 열일곱 살이 된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기억을 통째로 잃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은 물론 자신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플로라 자신의 몸에 직접 펜으로 써 넣은 메모며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다시 추측해야 한다. ‘내 이름은 플로라. 힘내.’ 손바닥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바로 이 문구가 써 있다. ‘나는 열일곱 살이야.’라는 문구도. 플로라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릴 때마다 손바닥과 손목, 팔뚝 곳곳에 적힌 글씨를 보며 자기 이름과 나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다.

이번에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땐, 주위에 온통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방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손부터 내려다보니 ‘파티’라고 적힌 붉은 글씨가 보인다. 항상 그렇듯 플로라는 깨어난 직후면 일단 자기 자신이 가장 어색하다. 머릿속엔 열살 때 이후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기에, 머릿속으론 자신이 아직도 열살 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는 몸은 열일곱 살 소녀이고 그 몸에 걸친 청바지며 성숙해진 얼굴도 다 어색하게 느껴진다. 플로라는 펜을 찾아 ‘넌 네 생각보다 나이가 더 들었어.’라는 문구를 써 넣을까 생각한다. 팔목에 ‘술 마시지 마’라는 문장이 써 있지만, 플로라는 파티장에서 누군가가 건넨 와인을 받아 훌쩍인다. ‘P의 남자친구 드레이크가 떠날 예정.’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P는 네 살 때부터 플로라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페이지를 의미한다. “드레이크가 어디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 파티가 열렸고, 그는 페이지의 남자친구고, 나는 열일곱 살이다.” 플로라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곱씹는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용기를 끌어 모아 찾기 시작한 따뜻한 기억
낯선 사람들 틈에 계속 섞여 있자니 왠지 불안한 마음에 파티장을 겨우 빠져 나온 플로라. 몸

에 적힌 집 주소를 확인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드레이크가 쫓아온다. 그는 뜻밖에도 자신은 이미 페이지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플로라에게 단 돌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다정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키스까지 나누고, 플로라는 드레이크가 건네준 작은 돌멩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드레이크와 키스했어.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문구를 팔에 써 넣었다. 우연히 그 일을 알게 된 페이지는 잔뜩 흥분하고, 플로라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수 년째 기억이 리셋되는 일상을 살아온 플로라에게, 어느 날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플로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온 힘을 다해 그 기억을 쫓아 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때마다 누구를 믿고 누구는 믿으면 안 되는지 다시 생각하는 처지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가 실제로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는 북극의 노르웨이령 스팔바르 제도라는 독특한 지역을 배경으로, 첫 사랑의 기억을 찾아 헤매는 플로라의 여정과 그 속에 시시각각 존재하는 긴장감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밀리 바(Emily Barr)는 런던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첫 소설 성인 스릴러 소설 『BACKPACK』을 발표하고 이 책으로 'WH 스미스 뉴 탠런트 상(WH Smith New Talent Award)'을 수상했다. 이후 성인 소설을 11권 이상 더 발표했다.

제목 : DON'T FORGET ME!

가제 : 날 잊지 마

저자 : Victoria Stevens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7년

분량 : 약 80,000 단어

장르 : YA 소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과 살게 된 소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마음의 슬픔

밤이 되면 더 크게 울려 퍼지던 엄마의 비명소리. 병마와 싸우던 엄마는 차가운 겨울 밤에도 이마가 흥뻑 젖도록 식은 땀을 흘려가며 한밤중에 몇 번씩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다. 익숙해진 헤이젤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 방으로 가서, 다 괜찮을 거라고 여러 번 속삭이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불안에 떨며 헤이젤의 손을 꼭 붙잡던 엄마는 세상에 떠나버리고, 헤이젤은 런던에 덩그러니 홀로 남았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아픈 가슴을 미처 다 추스르기도 전에 헤이젤은 몇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아저씨인 그레이엄과 함께 호주라는 낯선 대륙에 도착한다. 런던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헤이젤을 돌봐주기로 한 그는 물심양면으로 헤이젤을 챙겨주고 고등학교 전학 절차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었다. 하지만 헤이젤은 익숙하던 집과 동네를 떠난 것도,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전부 낯설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엄마와의 추억이 남은 영국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고만 싶었다. 호주에 도착한 다음 날, 시차 적응이 힘들어 낮에 잠들었다가 한밤 중에 잠에서 깬 헤이젤은 그레이엄의 집 바로 앞에 펼쳐진 해변으로 잠깐 산책에 나선다. 부엌 쪽 뒷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간 헤이젤의 눈 앞에, 환하게 밝은 달빛과 드넓은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이 그림 같은 풍경으로 펼쳐졌다. 런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모래사장과 바다가 만나는 곳까지 걸어가 방공기를 들이키자니, 잠시나마 외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때 문득, 해변 저 쪽에서 왠 남자 한 명이 걸어왔다.

또래 친구들이 저마다 가진 슬픔과 고통을 보며 자연스럽게 얻은 위안과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

쾌활한 웃음을 얼굴에 가득 지으며 다가온 키 큰 그 남자는 또래처럼 보였다. 겁을 먹고 잔뜩 움츠린 헤이젤을 사랑 좋은 미소로 안심시키며 자신을 레드라고 소개한 그 소년은 서글서글하고 좋은 아이 같았다. 올빼미처럼 밤이면 해변을 쏘다니는 레드와 그렇게 처음 안면을 트 헤이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레드의 쌍둥이 여동생 루카와도 만난다. 어떤 아이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묘한 매력의 루카는 레드와 달리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며 사는 것 같았다. 헤이젤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보면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 왔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

호주의 뜨거운 태양과 바다, 보드라운 모래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런던에 남기고 온 슬픈 추억과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다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헤이젤은 열심히 다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슴 전체를 메운 슬픔에 목이 막히는 느낌을 받아 본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정과 가족, 처음 느낀 사랑과 같은 다소 낯선 감정을 하나씩 배워가는 레이첼의 이야기가 간간히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쓰는 헤이젤의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 그리고 각자 힘겨운 십대 시절을 나름의 방식대로 이겨내며 사는 개성 만점 주변 인물들을 통해 따뜻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가 온라인 소설 커뮤니티 ‘왓트패드(wattpad)’에 처음 게시한 후 조회수 15만 회를 돌파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빅토리아 스티븐스(Victoria Stevens)는 로햄턴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막 끝내고, 창작 글쓰기 석박사 과정을 같은 학교에서 밟을 예정이다. 위 소설은 데뷔작이다.